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h1>보도자료</h1>	2016. 8. 24(수)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기업수출지원과 과장 윤현주 / 서기관 이용훈 (Tel. 044-200-2221/2217)
* 엠바고 : 8.24(수) 16:30(행사 종료)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소비재 품질 브랜드 신뢰성 등 가치경쟁력 으로 수출 견인해야

- 황 총리, 현장 목소리 수렴 위해 5대 유망 소비재 수출기업과 현장간담회 개최

□ 황교안 국무총리는 8월 24일(수) 오후 무역센터(서울 삼성동)에서 경제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유망 소비재 수출 유망기업 대표 및 관계 전문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업계대표**(유근직 잇츠스킨 대표, 박진영 코스메랩 대표,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 김한기 신신제약 대표, 박세권 보령메디앙스 대표, 김종부 엔유씨전자 회장, 문재길 영동식품 대표, 최정호 대상 FNF 대표, 우영미 쉐리드 대표, 권성재 더휴컴퍼니 대표) ▲**전문가**(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송기홍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 ▲**유관기관**(산업부 1차관, 무역협회 부회장)

○ 이날 간담회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을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 소비재 수출 유망기업들을 격려하는 한편, 소비재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방안을 설명하고 민간의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①화장품 ②의약품 ③생활용품 ④식료품 ⑤패션·의류 등 5대 분야에서 혁신적 아이디어, 우수한 품질·기술력으로 소비재 수출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 △ 코스메랩 : 아이디어 상품 동물 마스크팩, △ 셀트리온 : 세계 최초 항체바이오시밀러 ‘램시마 개발’, △ 엔유씨전자 : 원액기 미국 컨슈머 리포트 1위, △ 대상 FNF : 세계 김치 수출 1위 등

□ 황 총리는 가발, 봉제, 신발 등 경공업 제품 수출로 무역입국의 기초를 마련한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화장품, 의약품 등 소비재가 다시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면서,

- * '16년 상반기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13대 주력) △11.3, (5대 소비재) 10.6%
- 5대 수출 유망 소비재 :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농수산물, 패션의류

○ 가격경쟁력만으로 승부하던 과거와는 달리, 제품의 품질, 브랜드, 신뢰성 등 '가치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해나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소비재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소비재의 프리미엄급 품질 확보 등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유망 소비재에 대해서는 R&D 지원규모 확대, 디자인·금융·인력양성 지원 등 일련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 (R&D) 유망 소비재 R&D 규모를 '20년까지 대폭 확대('15, 3,160억원 → '16, 3,289억원)
- (금융) 무역보험 특별지원(한도 1.5배, 보험료 할인), 대출확대(0.5조원 → 1조원, 수은)
- (인력) 화장품 학과 개설, 스타디자이너 양성 등 전문인력양성 지원

○ 우리 소비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류상품 박람회 개최, 한류기획사와 중소기업간 상시 협업시스템* 구축 등 한류와 연계하여 소비재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 한류기획사와 중소기업 등이 상호 희망하는 정보(△한류기획사는 협찬 희망품목 공고, △중소기업은 자사 제품 소개)를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하여 양자간 매칭 지원

○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역직구'를 우리 소비재 수출의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중국 현지 보세창고 확충 등을 추진하고

- * 판매대행 전문기업을 통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확대('15 : 1,500개사→'16 : 2,000개사) 및 유력벤더 초청 상담회 ('15 : 11회→'16: 16회)

- 아울러, 한국산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역직구 통관인증제*와 반품 지원 센터** 구축 등을 통해 해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불만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수출 통관을 거친 역직구 수출 제품에 대해 관세청이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해외 소비자가 한국 수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 제품하자, 고객 변심 등으로 반품 요청이 들어온 역직구 제품의 현지 물류와 통관 애로해소를 지원

□ 한편, 황 총리는 금년 상반기 5차례에 걸친 수출관련 현장행보 이후, 이번에 하반기 첫 번째 수출관련 행보에 나섰다,

* 1월 FTA활용 우수 중소기업 간담회, 3월 중국 수출기업 간담회, 무역업계 간담회, 5월 제조업 수출강소기업 간담회, 서비스업 수출강소기업 간담회

○ 앞으로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